

- ① 참고한 문헌들이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인용한 부분에 대한 출처(각주)를 밝히고 있지 않음. 각주를 꼼꼼하게 정리할 것.
- ② 에세이의 기본 형식을 따르려는 시도는 있으나, 본문에서 다루는 내용을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③ 참고한 문헌들에서 제시하는 핵심 논증 등을 요약 및 분석하고, 그것들을 활용하여 더 나아간 논의를 해야 함.
- ④ 교재의 5장을 참고하여 글의 전체적인 구성을 재조정할 것. 본문 또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장을 구분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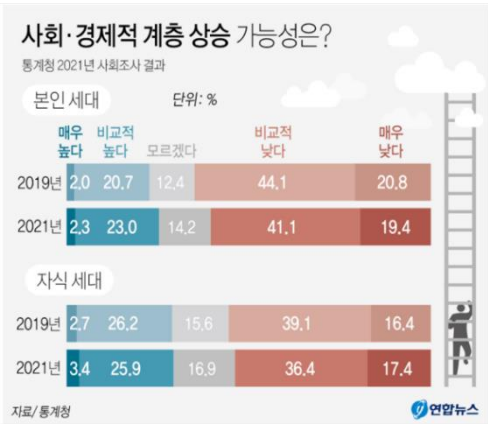
능력주의와 계급사회

202111678 송윤주

<서론>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인가?” 이것은 하버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이 10여 년 만에 공정하다는 착각을 출판하면서 독자들에게 던지는 문구이다.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의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는 개인의 역량뿐 아니라 운과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주장하며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에 주목하자고 말한다. 능력주의란 승진, 보수 등에 관하여 능력에 의한 평가를 준거로 하며, 능력 있는 자는 보다 빨리 승진시키고 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인사행정의 한 접근방법 즉,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권력 등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사회 체제이다. 능력주의를 옹호하는 자들은 그것이 과거 귀족제와 달리 타고난 신분과는 상관없이 노력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능력주의와 귀족제는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 다들 알다시피 현대사회의 계층 구조는 크게 상류층(이하 엘리트계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구분한다. 능력주의가 노력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놀랍게도 통계청이 실시한 2021 사회조사에 의하면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노력만으로는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본인 스스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데 노력을 통한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본 사람은 55.9%로 비교적 높은 편이라 말할 수 있지만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노력을 통한 계층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본 사람은 14.9%에 불과하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중·하류층 사람들에게는 노력을 통한 계층 상승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일례로 2013년도에 2년제 대학을 졸업한 당시 22살 신성철씨는 “지금 제가 어려운 것은 참을 수 있는데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난이 내 다음 세대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라고 말한 바 있다.>

<본론>

1. 사라진 중산층의 자리

능력주의는 고된 노력과 기량, 합당한 보상이라는 이상을 퍼뜨림으로써 사회 전체를 통합하려 한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더는 약속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2004년 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고소득 가정의 학생 중 15% 정도가 누구나 가고 싶은 명문대학에 입학했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각각 5%, 2%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격차=학교 교육의 영향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월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학생이 명문대(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등과 의대 치대 한의대 등 의학 계열 단과대)에 진학한 비율은 10.4%로, 전체 진학 평균인 3.7%보다 3배 가까이 높았으나 부모의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학생의 명문대 진학률은 0.5%, 200만원대 미만의 학생의 경우 1%, 300만원대 미만의 학생인 경우 4.3%에 불과했다. 명문 학교 진학은 곧 취업으로 이어진다. 과학고 졸업생의 대기업 취업률은 76.7%, 외고 졸업생 57.9%인 것에 비해 일반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37.7%로 약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처럼 오늘날 중산층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에서부터 부유층 아이들에게 뒤처지고 중산층의 성인들은 직장에서 명문 학교 졸업자에게 밀려난다. 즉, 능력주의는 중산층에게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시킨다.

2. 새로운 계층의 탄생과 계급의식 -> 핵심 논증을 다루고 있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일 반론에 그치고 있는 아쉬움이 있음.

계층에서 계급으로의 이행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계급으 로의 이행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 나아가 그러한 현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그렇지 않은지 등등에 관한 더 깊이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게다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현상은 미국에 한정되어 있음.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모습이 아닐까?

20세기 중반만 해도 미국은 중산층이 주도했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부분의 노동은 기계로 대체되고 중산층의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1990년대 맥도날드를 운영한 에드 렌시는 1960대에는 “모든 것을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지점이 판매하는 음식을 조리할 직원을 70~80명이나 고용했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오늘날 패스트푸드점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맥도날드나 그와 비슷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반조리된 식품을 완전히 포장된 상태로 받기 때문에 판매하기 전에 데우기만 하면 된다. 당연히 프랜차이즈 업체가 채용하는 직원 숫자도 크게 줄어들었고 실제로 맥도날드의 경우 직원 숫자가 절반 넘게 감소했다. 그러나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엘리트 업무는 까다로워져, 상층부의 초숙련 근로자들은 평범한 중간 숙련 근로자들을 대체하는 생산 공정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결국 10명 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고위 경영자들만 남게 되었다. 물론 엘리트 계층 사람들이 그 계층에 머물기 위해,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 높은 수준의 노력을 가하고 있어 그들 역시 늘 긴장하고 지친 상태일수 밖에 없는 것은 과거 귀족과의 차이가 있다. 이렇듯 일전에 없던 새로운 엘리트 계층이 탄생되었고 이러한 엘리트 계층은 중산층이 평생을 벌어도 살 수 없는 아파트에 모여 살거나 중산층 자녀들은 갈 수 없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식으로 중산층과 자신들을 구분 짓는다. 게다가 부유층과 나머지 계층은 일, 결혼, 양육, 사교생활, 독서, 식사는 물론 종교 참배도 따로 떨어져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이와 같은 차이가 축적되고 능력주의에 따른 격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게 벌어져 부유층과 나머지 계층은 서로에게 공감하지 못한다. 능력주의 meritocracy는 라틴어 어원 mereo에 걸맞게 후천적으로 얻은 혜택만을 예찬하며 엘리트를 민주주의 시대에 적합하게 바꿈으로써 계층 제도의 이상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사실상 오늘날 능력주의는 엘리트 계층과 중산층 사이의 거리를 멀게 만들고 사회에 분열을 초래한다.

3. 능력주의와 계층의 세습->계급

앞서 언급했듯 엘리트 계층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받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한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노력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요즘의 상류층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엄청난 재산과 에너지를 쏟고 있으며 엘리트가 끼리끼리 결혼하는 이른바 '선택혼' 현상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엘리트들은 끼리끼리 결혼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결혼을 유지하면서 자녀들을 성숙하고 안정된 가정에서 양육하는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날때부터 큰 우위를 제공받는다. 그 이유는 능력주의 시대 엘리트는 '집중 양육'이라는 의도적인 계획을 활용하는데 집중 양육이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 더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특별하게 설계된 양육방식을 말한다. 엘리트 부모들은 자신들의 엄청난 수입과 삶의 경험을 자녀의 인적 자본 개발에 쏟게 된다. 이때 엘리트 부모는 자신들이 받은 교육을 모방하는데, 집중 양육은 엘리트 계층이 아닌 부모들이 파악하기조차 불가능한 방법과 기량을 필요로 한다. 직접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엘리트 부모는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부모에 비해 자녀들에게 한층 더 너그러운 애정, 폭 넓은 참여적 교류, 일관성 있는 훈육을 제공한다. 이러한 차이는 비단 가정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산층 유치원에는 독서와 공예 수업이 있으며 좋은 곳의 경우에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만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교사들이 있다. 그에 비해 엘리트 유치원은 충분한 직원과 다양한 책을 갖춘 도서관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외국어, 과학, 사회 과목을 따로따로 가르친다. 각 과목은 엘리트 대학을 나온 교사와 보조 교사가 담당하며 일부 교사는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다. 이처럼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정의 어린이조차 출생부터 계획적이고 숙련된 투자를 막대한 규모로 꾸준히 받아온 부유층 어린이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양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또 다시 그들의 부모와 같은 엘리트 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고 능력 경쟁을 장악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양육을 기반으로 자녀 교육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다. 이처럼 능력주의 사회에서 엘리트 계층은 귀족제도를 해체하기보다 이를 재편해 부가 토지나 공장이 아닌 인적 자본, 즉 숙련 근로자의 자유노동 형태로 존재하는 세상에서 자신들의 계층을 물려준다. 결국 능력주의는 소득과 부의 최대 원천이 토지가 아닌 노동력인 세상을 위해 맞춤 제작된 귀족 제도와 다를 게 없다.

<결론>

엘리트 계층은 자녀에게 특권을 상속해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왕조를 만든다. 부자학교에 다니면서 비싼 사교육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은 아이들이 일명 ‘명문대’와 ‘주요 대학’을 독차지하여 이들이 법조계, 의료계, 학계 등 유력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직종을 독식하게 되었고 계층의 세습으로 인하여 능력주의 사회도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나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 능력주의는 과거 신분제의 불평등했던 세습과 다르게 단 하나의 단어로 정당화되는데 그것은 바로 ‘능력’이다. 능력주의를 옹호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돈과 명예와 같은 결과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니까 불만 가지지 말고 노력하라고 말한다. 이에 대니얼 마코비츠는 능력은 인적 자본의 착취를 정당화하고 부당한 분배를 눈가림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 구조물이라고 강력한 일침을 날렸다. 결국 오늘날의 능력주의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엘리트 계층의 목표를 충족하는 도구로 새로운 계급사회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참고 문헌>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함규진, 와이즈베리, 2020, p.418

대니얼 마코비츠, 「엘리트 세습」, 서정아, 세종서적, 2020, p.502

배정원 “예일대 교수의 경고 “능력주의가 공정하다고? 모두의 속임수 일 수도””, <중앙일보>, 2021.07.15 <http://joongang.co.kr/article/241057933home>

이범, “[이범의 불편한 진실] ‘능력주의 비판’을 비판한다”, <경향신문>, 2021.06.10 <http://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6100300045>

김용일, 교육의 계급화와 불안한 미래, 내일을 여는 역사, 2010, p.123~125